

451号计



漢拏曰邦 제942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8월 3일 화요일(음력 6월 25일)

■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신교통수단'트램'적극 도입을"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관광 인프라 아닌 대중교통 측면으로 접근해야" 역세권 형성 전략·친환경성 등 장점 본격 공론화

제주의 미래 도시계획 수립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협의를 거쳐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 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 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마지막 소주제로 '제주 도시계획과 교통인프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관련기사 7면

토론은 지난달 26일 제주와미래연 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의 사회로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 사, 박경훈 화백(전 제주문화예술재 단·제주민예총 이사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트램이 집중 부 각됐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 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일컫 는다. 트램이 제주사회에서 본격적으

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당 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약 사업 으로 내걸면서다. 당시 우 지사는 관 광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트램 도입 을 주장했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비 등 경제성을 이유로 실현가능 성 논란이 일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2016년 원희룡 도정이 '제주 교통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트램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경제 성 논란으로 재차 파기됐다.

두 차례 폐기됐던 트램 계획은 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올해 1월 수소전기트램 도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등장했다. 제주도 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신 규 핵심사업으로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도민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데다, 찬반 갈등만 일으킨 채 사라졌던 이 력이 있어 해묵은 논란이 되풀이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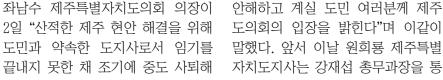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패널들은 트램 도입에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적자 가능 성은 있지만 제주에 자동차를 제어 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한 다는 측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 다는 것이다. 또 우근민 도정 당시와 같이 트램을 관광 인프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활·산업 인프라, 즉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손상훈 박사는 "트램은 도시계획 과 교통계획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트램 노선을 구축하고, 수요 창출을 위해 트램 노선이 지나는 곳에 역세 권이 형성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교수는 "수소·전기트램과 같은 깊숙한 논의보다는 현 단계에 선 제주에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와 도입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며 "트램은 공공성을 갖는 신교통수 단이지만 적자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에도 제주에서 트램이 계속해서 언 급되는 이유는 제주가 갖는 친환경 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원희룡 지사, 어제 사임 통지서 도의회 공식 제출

제주자치도의회, 지사 사퇴 따른 공식 입장 발표

사태를 맞이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주도지사 사 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

수장 없는 도정공백을 걱정하고 불

도정 공백이 한층 우려되는 초유의

자치도지사는 강재섭 총무과장을 통 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사 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좌 의장은 "오늘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지사직 사임 통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제주자치도의회 의장단이 2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원희룡 지사의 사퇴서 제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지사 조기 사퇴 도정 공백, 깊은 유감"

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 인의 도정 지휘체계도 도지사 사퇴와

함께 정무부지사까지 자동면직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행정 부지사 1인 권한대행으로 축소된 비 상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심각 안해하고 계실 도민 여러분께 제주 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 좌 의장은 이어 제주도정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위기 대응체 계가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한 치 의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하고 강력 히 작동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시급한 현안들 이 권한대행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 없이 일관성있게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강다혜기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 오늘 관광공사 웰컴센터… 8월 도의회 동의안 제출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란 비판을 받 으며 보완에 들어갔던 제3차 제주국 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3일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최상 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안 수립 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날 제주관광공사 웰컴 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 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종

제주 코로나19

확진

합계획 수립 용역은 모두 마무리되 며,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를 남겨두게 된다.

지를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사전 선정 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 원, 시민단체 대표, 도민참여단, 지난 6월 공청회시 토론자 및 유관기관 관 계자 등도 참석한다. 온라인으로 참 여하는 도민들은 댓글을 통해 실시

간 참여할 수 있다.

보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의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 께 객석에 참석한 도민과의 질의응 답 순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중 제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당초 일정은 6월 25일 최종보고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 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 제출 등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도의회 업무보고와 도민 공청회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최종 용역결과 제출을 앞두고 관련 일정이 모두 미뤄졌다. 강다혜기자

"제주 문제 해결에 힘 보태겠다" 원 지사, 마지막 직원조회서 소회 피력

제주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한 원희 룡 지사가 "이제 도지사 직을 내려놓 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며 "여러분들에게 부 끄럽지 않은 제주인으로 행동해 가 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의날 및 직원조회를 마지막으로 고 살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한 차원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며 "늘 제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제주 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위치 에서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여러분 모두가 맡은 일 들을 성실하게 해주셨기에 지난 7년 원 지사는 2일 집무실에서 소통 · 간 제주는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 달라질 수 있었다"며 "여러분들이 제 원 지사는 "도지사를 사임한다고 주 공직사회의 풍토를 지키고 더 나 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주시리라 믿는 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년의 시 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특 히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직자들 과 더 많은 만남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고객들의 체험과 일선 담 당자의 업무에 직접 연결되는 행정 을 하고자 했지만, 실천에 아쉬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 을 맡게 되는 행정부지사님은 공직 자로서 여러분들을 아우르고 함께 해나갈 훌륭한 분"이라며 "무거운 책 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따라주시고, 특히 코로나 방역과 도 민 생활 회복에 모두가 힘을 쏟아 달 라"고 주문했다. 강다혜기자

